

광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대상...오늘부터 선착순 200대 모집

차량 주행거리 감소 비율 따라 최대 10만원 상생카드 지급

광주시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 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해 가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car.cpoint.or.kr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포인트는 참여 종료 시 계기판 사진을 10월말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축량이 계산돼 인센티브가 연말에 지급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천km 감축시 2만 포인트 △10~20%, 1천~2천km 감축시 4만 포인트 △20~30%, 2천

~3천km 감축시 6만 포인트 △30~40%, 3천~4천km 감축시 8만 포인트 △40%이상, 4천km이상 감축시 10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참여자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광주시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총 200대이며,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광주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도 쟁기고 유류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착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영범 기자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현판제막식 참석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삼 시민공공일자리지원센터 본부장,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나성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구중현 일자리정책관.

이용섭 시장 “역사의 죄인 전두환, 석고대죄하라”

“역사 폼페 세력 단죄”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관련 성명'을 통해 “역사의 죄인 전두환은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5·18항거사격을 증언한 고(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전두환이 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며 “오월 영령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이, 광주 시민의 울분과 분노가 전두환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 5월, 무고한 광주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최초의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라고 전 씨에게 물었다.

또 “우리는 아직 그 대답을 듣지 못했다. 사죄와 반성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두환을 심판대에 다시

소환한 이유다”며 진실을 밝히려고 요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흘렀건만 아직도 5·18진상규명은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며 “5·18정신 계승과 세계화는 5·18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냄과 동시에 오월역사를 왜곡·폄훼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범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omotio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동구, 남문로에 새로운 녹색 불거리 탄생

광주 동구가 도심온도 1℃ 낮추기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남문로 '녹지 한 평 늘리기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인 남문로 상행선(지원IC~지한초교) 자투리 공간은 덩굴과 잡초로 뒤덮여 도심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었다.

동구는 1.5km 구간에 걸친 이번 녹지공간 사업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남문로를 지나는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도시형 그린빌리지 조성 박차

광주 서구가 도시형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해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용·복합지원)사업' 원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는 현재 올해 사업대상인 화정3동 일대 200여 세대에 태양광설비공사를 90%이상 완료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가신청을 통해 도시형 그린빌리지 조성을 원수할 계획이다.

화정3동 지역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설비 보급율이 4%에 불과했지만,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8%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근접하게 된다.

남구, 영어체험 등 공교육 선진화 사업 펼친다

광주 남구는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특구 특화 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어체험 활동 지원 등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3가지를 추진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구성에서는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심사 위원들은 남구에서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 활동 지원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일 학교 운영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등 3가지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북구,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나서

광주 북구가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북구는 내달부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원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0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1999. 12. 31.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시설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이다.

광산구, 시민행복위원회 출범하고 위원 위촉

광주 광산구는 24일 '시민행복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광산구가 일상에서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행복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을 받은 위원들은 2/26~3/10일 공개 모집에 참여한 시민들로, 여성·노동·노인·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광산구의원과 공무원도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시민행복위원회는 △기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등을 담당한다.

임형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보험료부담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